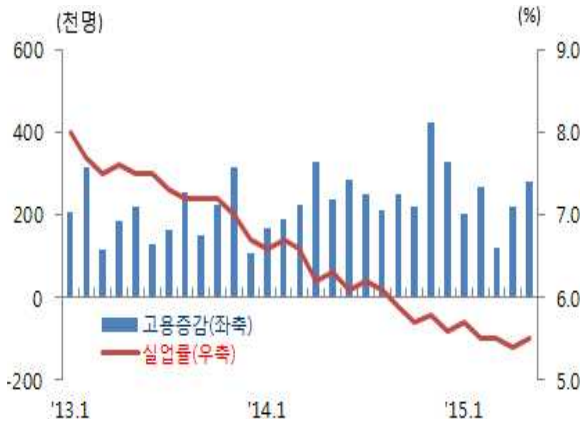


## 美 5월 고용지표 내용과 뉴욕 금융시장 반응

### 1. 고용 지표

- '15.5월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는 전월대비 **28.0만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22.6만명)를 상회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26.2만명**(예상치 +22.0만명) 증가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도 **1.8만명** 증가
    - 업종별로는 모든 주요업종이 전월대비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건설업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도소매, 교육·의료 및 여가·호텔·식당 부문 등 서비스업종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
      - \* 교육, 의료부문은 2012.10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 기록
    - 임시직은 3개월 연속 증가
  - 직전 2개월치('15.3~4월중) 취업자수는 3월 중심으로 **3.2만명** 상향조정
    - 민간부문은 **1.6만명** 상향조정
      - 3월: 2.3만명 상향(+9.4만명 → +11.7만명), 4월: 0.7만명 하향(+21.3만명 → +20.6만명)
    - 정부부문도 **1.6만명** 상향조정
      - 3월: 1.1만명 상향(-0.9만명 → +0.2만명), 4월: 0.5만명 상향(+1.0만명 → +1.5만명)
- 경제활동참가율(4월 62.8% → 5월 62.9%)이 2개월 연속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률(5.4% → 5.5%)은 0.1%p 상승
  - U-6 실업률(비자발적 파트타임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은 전월수준(10.8%)을 유지
- 주당 평균노동시간(34.5시간)은 3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전월비 0.3%, 24.88 → 24.96달러, 전월치 0.01달러 상향조정)은 시장 예상치(+0.2%)를 상회

非농업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非농업 취업자수 주요 부문별 증감

	(단위: 천명)			
	'14.5월	'15.3월	4월	5월
■ 非농업 전체	236	119	221	280
- 민간 부문	238	117	206	262
(건설)	11	-12	35	17
(제조)	12	6	1	7
(도소매)	17.1	37	11	35.5
(운송·창고)	20.2	1.9	10.8	13.1
(교육·의료)	56	42	64	74
(여가·호텔·식당)	57	6	10	57
(임시직)	13.4	15.8	16.1	20.1
- 정부 부문	-2	2	15	18

## 2. 금융시장 반응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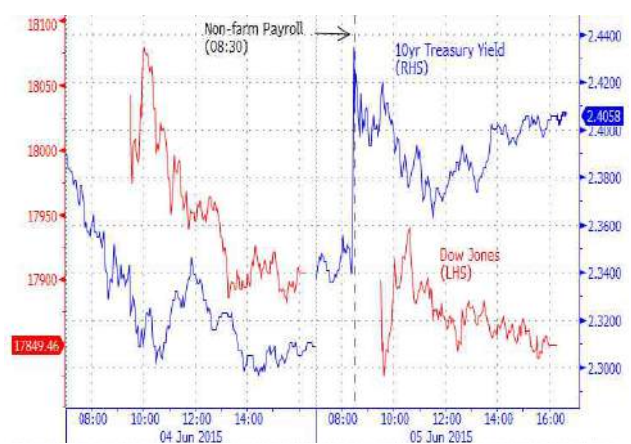
- 취업자수 및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 예상치 상회로 고용지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음에 따라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가 확대되면서 금리는 상승, **미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주가는** 그리스 채무협상 난항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소폭 하락
  - **미국채(10년물)** 금리는 지표 발표 후 큰 폭의 갭 상승(9bp)을 보이며 전일 종가대비 약 13bp 높은 2.435%까지 상승하였다가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폭을 일부 축소하며 마감
    - 만기별로는 7년 주변의 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주가(다우지수)**는 전일 그리스 총리의 채권단 구제금융 합의안 거부 소식에 따른 유럽 주가 하락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는 대체로 혼조를 나타내는 등 변동폭이 크지 않았음
  - **미달러화**는 고용지표 호조로 대부분의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고 특히 그리스 채무협상 관련 이슈가 부각된 유로화에 대해서는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었음
  - **금가격**은 미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한 반면, **유가**는 고용지표 발표 직후 하락하였다가 원유채굴 장비수(rig count) 감소세 지속(2010.8월 이후 최저치) 등으로 상승 반전하여 마감

주요 금융지표 동향

		'14년말	'15.5말	6.4	6.5 <sup>1)</sup>	전일 대비
미국채	2년물	0.66	0.61	0.66	0.71	+5bp
	10년물	2.17	2.12	2.31	2.41	+10bp
주가	다우	17,983	18,011	17,906	17,849	-0.3%
	S&P 500	2,080	2,107	2,096	2,093	-0.1%
환율(\$/€)		1.2104	1.0986	1.1238	1.1114	-1.1%
금(\$/온스당)		1,182	1,191	1,177	1,172	-0.4%
WTI US/bbl		53.3	60.3	58.0	58.9	+1.6%

주: 1) 뉴욕 16:30분 기준

미 국채금리 및 주가지수 일증변동 추이



## (월가의 평가)

□ 실업률이 상승하였으나 헤드라인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상당폭 상회한 데다 직전 2개월 취업자수가 상향조정되고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음

- 이에 따라 9월 금리인상(공식 전망치 기준)을 전망해온 투자은행들은 이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고, 12월 인상을 주장한 투자은행도 9월 인상에 대한 논의 여지가 커졌다는 견해를 피력

(Goldman Sachs) 헤드라인 취업자수 및 시간당 평균임금 등 주요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견조한 지표로 평가. 다만 시간당 평균임금 예상치 상회는 calendar distortion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함

\* 월간 총 급여지급액이 근로일수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전월보다 줄어든 달(4월: 22일 → 5월: 20일)의 경우 시간당 평균임금이 (계절조정 후에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JP Morgan) 5월 지표는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였고 부문별로도 고용증가가 균형을 이룬 모습이었음. 이에 따라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도 누그러질 것이며 6월 FOMC 회의시 9월 금리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임. 고용비용지수(ECI)와 함께 시간당 평균임금도 상승함에 따라 FOMC가 자연실업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기가 어려워졌으며 한계근로자(population marginally attached to labor force) 및 실망실업자 비율이 각각 0.7%와 0.2%로 지난 경기확장기 중반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측면에서의 갭(participation gap)도 완전히 사라진 것(completely closed)으로 판단

(Barclays) 이번 고용지표는 1/4분기의 경기 부진이 일회성 요인들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었다는 판단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으며 2/4분기 이후에는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9월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 광의의 실업률 지표들(U4, U5)이 개선됨에 따라 헤드라인 실업률(U3) 상승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향후 노동시장 slack 축소와 경기회복으로 임금상승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Morgan Stanley) 최근 몇몇 연준 인사들이 금리인상시점 전망을 늦출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고용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9월 인상에 대한 논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금리인상시점은 12월 전망을 유지)

(BoA Merrill Lynch) 고용지표는 견조한 기초적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서서히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시간당 평균임금지표가 불규칙적(noisy)이긴 하지만 ECI 등을 함께 감안할 때 임금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연준은 금일 고용지표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9월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

(UBS) 일자리 증가가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준 고용지표였으며 이러한 고용 회복세가 드디어 임금 상승압력을 확대시키기 시작했다고 판단. 고용 증가 지속과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 및 임금상승세 확대 등을 감안하여 9월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